

와이키키한인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강성호 | 예배사역자: 김토니

와이키키 교회 '임마누엘' 소식

환영: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텍스보고 위한 2021 년도 현금 리포트: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행복학교: 1/18-4/19 (12 주) 화요일 오전 10 시에 주제 "공감의 말하기" 행복 학교, 진행 중입니다.

복음방송: 화요일(4:30 pm) "하나님과 함께 걷기" (김토니 전도사); 목요일(9:50 am) "시편으로 보는 복된 가정" (강성호 목사) -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모임: 매주 금요일 7 시, 찬양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찬양과 기도, 말씀의 시간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7:30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한주간 읽을 성경말씀:

다음 주일설교 (2/20): 요셉의 꿈

목요줌모임 (2/17): 신앙의 기본 진리

금요 찬양과 기도 (2/18): 찬양, 기도, 이사야

주일설교 본문:

창 32:24-32 야곱의 꿈

창 37:7-11 요셉의 꿈

출 3:1-22 모세의 꿈

민 14:6-9, 27:18, 수 6:16 여호수아의 꿈

와이키키한인교회



Waikiki Korean Church, SBC

Waikikikoreanchurch.com

하나님 형상 회복!

2022 년 2 월 13 일

주일예배 오후 1 시

예배 초청

찬양/기도: 김토니 찬양사역자

성경봉독: 창 28:16-22, 히 11:21

험악한 세월 속, 함께 했던 꿈

강성호 목사

봉헌기도

교회소식

축도



핵심구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 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47:9)

주일예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와이키키한인 교회를 찾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424 Kuamoo St. Honolulu, HI 96815; 연락처 808-947-1569

험악한 세월 속, 함께 했던 하나님의 꿈

창28:16-22, 히11:21, 창47:9

창세기 28:16-22 (KRV)

¹⁶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¹⁷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¹⁸야곱이 아침에 일찌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¹⁹그곳 이름을 베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²⁰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²¹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²²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47:9 (KRV)

⁹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히브리서 11:21 (KRV)

²¹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나는 나의 지나 온 인생길을 어떻게 말 할 수 있나요? 나는 순탄한 인생길을 살아 왔나요? 아니면 흠수저 물고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을 헤치며 살았나요? 다시 20 대로 돌아 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 가고 싶나요? 그 때 추억이 그리웁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 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하네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험악 했길래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장자

권에 대한 야욕이 대단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라도 장자 권을 탈취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형 에서의 분로를 샀고 그로 인해 죽음의 공포까지 마음에 품어야 했습니다.

그의 험악한 인생은 허다한 세월 동안 속이고 속고 배신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딸은 강간 당했고 장자는 서모와 간통했으며 자신은 주변국가 왕에게 생사를 위협하는 위기를 맞았고 사랑하는 아들은 노예로 팔려 갔으며 아들들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 치명적인 흉년으로 인해 식솔들을 이끌고 이민 길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를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욕심 많아 평탄하지 못한 인생길을 지나야 했던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의 인생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험악한 인생 길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손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찾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동안 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손에게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체험은:



- 베엘 -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엘이라 했습니다.
- 서원 -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 할 것이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 엘베엘 -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베엘에 부르셨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험한 인생길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꿈. 그에게 찾아 오셔서 미래를 펼쳐 주신 하나님의 꿈.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심을 믿습니다.